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이 병 철 의원



“안전한 대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병 철 의원

● 이병철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들어 안전의식의 부재와 안전점검의 소홀로 인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및 이태원 사고를 비롯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가 안심하고 다니는 어느 곳에서든 안전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에 시설개선을 통한 여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 교통사고 제로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대전시의 교통사고 및 사상자수는 매년 감소 추세로 지난해 대전시의 교통사고는 7,027건으로 사망자는 59명, 부상자는 1만 1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된 사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도로환경 시설개선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안전 시책이 우리 시 교통사고 발생진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전시는 더욱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은 477개소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구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무인단속카메라, 보도정비, 미끄럼방지시설, 옐로카펫 등의 어린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 바로 옐로카펫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옐로카펫 사업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중 81%가 횡단보도 관련 사고임을 감안할 때 횡단보도 진입부를 노란색으로 색칠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로 설치하였습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하였고 2022년 9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 57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하거나 무인단속카메라 및 노란 안전펜스 설치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보지 못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도와 1m 이상 떨어진 곳에 노란 발자국 스티커를 붙이거나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등의 개선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닥신호등의 경우에는 주·야간 모두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떠나 대전시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설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전시는 매년 20~60개소를 선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도표에서와 같이 304건으로 사망자는 0명, 부상자는 404명,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22건으로 부상자가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2017년도를 제외하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에 좀 더 적극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제로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노란색 횡단보도 사업을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2일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횡단보도의 색상을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범운영은 대전을 제외한 대구, 인천,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조하여 1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설치 후 3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게 되며 시범운영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아쉽게도 이번 시범사업에는 우리 대전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빠져 있고 법률의 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통안전개선사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흰색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깨고 노란색 횡단보도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운전자로서는 경계심과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본인의 안전의식과 경각심입니다.

보행자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칙대로만 운전한다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안전의식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 도표와 같이 어린이사고 가해운전자의 범규위반 사항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5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호위반 11.5%, 안전거리 미확보 8.3%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적극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가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다고 하는 스위스에는 이 노란색 횡단보도가 전국에 보급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지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횡단보도 색깔만 바꾸는 이러한 사소한 노력만으로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 시에도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횡단보도가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평면교차로 설계지침에서는 설계의 기본원칙으로 교차로의 면적은 가능한 한 최소가 되도록 횡단보도 위치를 가급적 교차로의 중심에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해당도로 폭원에 맞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교차로 회전반경 내 횡단보도 설치로 횡단시간이 길어져 사고 발생이나 위험도가 높았던 만큼 이제는 교차로 회전반경 끝점 뒤로 횡단보도를 이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의 횡단시간을 단축하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시설개선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는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으며 운전자가 우회전할 시 두 개의 횡단보도를 거쳐야 하는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차량이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가 맞물려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멈춰있기보다는 횡단보도 사이 여유공간에 멈춘다면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안전운행에도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제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자체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전시 전체의 교통사고 제로화는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목표 중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것처럼 적극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제로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시범사업의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전시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안과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지역의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평균 지표온도가 약 100년간 0.85℃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온실가스 배출 시 21세기 말 전체적으로 강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반도 전 지역에서 강수량은 최대 40%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라는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서는 역대 최대치의 폭우가 쏟아졌고 뜨거워진 바다가 만들어낸 초강력 태풍 힌남노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남겼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후 위기로 도시 물순환 교란이 나타나고 있고 지표면의 불투수층 증가와 여름철 폭우발생 증가 패턴은 도시지역에서의 풍수해, 폭염 등 재난재해 발생의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지속되어 극도로 고온화되고 아열대기후형으로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도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현재 평균 3.4회에서 5~6회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현재와는 다른 사회경제체제와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9일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남역 일대 및 2호선과 신분당선역이 전부 침수되었습니다.

특히 강남역 일대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침수대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년간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모든 하수시설 대책을 마치더라도 시간당 95mm의 폭우 기준으로 설계되어 그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여전히 침수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이 우리 대전도 공히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우리 시 집중호우 상황이 예전과 다르게 방재목표인 시간당 85mm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7월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전은 역대 최장기간인 54일간 장마가 이어졌고 시간당 100mm 이상 쏟아져 내린 기습 폭우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도표에서와 같이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의 침수 피해가 가장 심했으며 이외에도 정림동 상당수가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함께 수목과 토사유실로 지역이 잠기고 차량들은 침수되었으며 사망자도 발생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피해사례를 볼 때 본 의원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관을 큰 관으로 개량하고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을 설치·증설하여 빗물을 신속히 배제하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 시행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지역인 정립동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우리 지역에 또 다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에서 유천2지역, 탄방2지역, 가장2지역, 둔산1지역 일대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수도 용량 확보 및 침수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이런 도심 한가운데가 침수피해 예상지역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대책 미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 옛날 하(夏)나라 우(禹) 임금은 치수의 공으로 천하를 얻었으니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물길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요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 도시침수에 대한 예방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전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기후변화 탓도 있지만 빗물관리 정책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빗물을 머금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는 등 빗물관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대도시는 대개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습니다.

빗길에 질척거리지 않아 편할 수는 있지만 그 대신 폭우에 취약한데 이는 기존의 보도블록들이 대부분 물이 통하지 않아 빗물이 대지로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 대부분의 도로는 불투수 포장으로 되어 있어 아스팔트 도로는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의 통로 역할을 하여 빗물이 지반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그 결과 정림동과 같이 지대가 낮은 곳이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해 인도와 도로에 투수블록과 투수포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전시 도심 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우리 대전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또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도심 내 침수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약자 편의증진,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등 시민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시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전시 교통사고 제로화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시범사업 등 시설개선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물어보셨습니다.

또 대전시 교통사고 제로화로 인한 방안과 계획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심 내 침수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예방사업에 대한 저의 입장 그리고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물 흐름 분산정책 관련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사고는 2020년 10월 현재 전년 대비 64.7%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17건에서 6건으로 11건이 줄어있습시다만 금년 연말까지 보호구역 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보호구역 내 최근 3년간 우리 시에는 사망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안전한 보호구역 내 전체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이 결정되고 시설기준이 마련되면 대전경찰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 시에도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5년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15개의 대책, 53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교통사고 제로화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심 침수 예방사업 추진계획 및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도로 투수율 확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저지대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심 침수 우려 지역 20개 지역에 대해 도심 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봉명동 일원 등 3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영신지구, 이진 서구 변동입니다.

봉명지구, 유성구 봉명동.

둔산3지구, 서구 둔산동입니다.

하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또는 우려 지역 등 4개소는 2017년부터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서 1,201억을 투입,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유천2구역, 탄방2, 가장2지역, 둔산1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4개소 중에서 유천2구역은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다른 지역은 설계용역 중으로 설계완료 후 조속히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등 정림동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받아 약 420억 원을 투입, 2026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방재성능목표 상향은 행안부의 지역별 목표지표 설정 변경여부에 따라 우수관 개량,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증설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도로 투수율 확보 관련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투수블록, 투수아스콘 등 투수성 포장재를 적극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그동안 시에서는 물순환이 되도록 저영향개발사업을 통해 도로에 내리는 빗물이 지반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각종 도로공사 시행 시 투수성 자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도 선제적인 조치로 기존의 용량보다 더욱더 높여서 미래에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등을 반영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대책수립 및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시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